

길 막혀 답답! VS 교회에 길 내줘 분통?

양양 휴휴암

사찰 경내의 사유지를 두고 신도와 10대 기업인 동부그룹 측 인부가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양양 휴휴암(회주 흥법)은 "8월 17일 오전 3시경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측 인부 100여 명이 포크레인 2대, 덤프트럭 2대와 함께 경내를 기습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휴휴암은 "경내에서 기도 중이던 신도 200여 명이 이들을 향의 저지하는 과정에서 신도 1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중장비는 오후 2시 현재, 신도들에 의해 경내에 접거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측 용역들은 휴휴암 경내의 김 회장 소유지에 나무를 심는다는 이유로 휴휴암에 진입해 50여 그루를 임시로 심었다.

휴휴암 회주 흥법 스님은 "휴휴암 내 김준기 회장 토지는 500여 평에 달한다. 그동안 휴휴암이 사용하면서 김 회장 측에 토지매입을 요구했으나 무리한 금액을 원해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문제가 된 땅은 동부그룹 측이 매입하기 전부터 도로로 쓰였다"며 "동부그룹이 매입해 방치한 땅을 사유지라며 철조망 등



사유지 처분 이전 갈등 동부그룹과 신도들 충돌

을 치고 신도의 접근을 막는 것은 불교탄압이다"고 주장했다.

동부그룹은 "휴휴암 내 토지가 농지로 돼 있어 토지소유자인 김 회장이 불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나무를 심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2009년 양양군청이 김준기 회장 소유 토지에 아무 경작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행적처분을 내려 2011년까지 원상복구를 끝

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그룹 홍보실 김동건 차장은 "휴휴암이 그 땅에 들어선 것은 1996년이지만 동부그룹은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1970년대 토지를 매입했다"며 "휴휴암이 사유지를 무단점유해 2000년부터 문제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또, "휴휴암 측이 토지매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동부그룹은 나무 50여 그루를 심기 위해 오전 3시, 100여 명의 인부를 동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조동섭 기자

파주 보광사

파주 보광사가 사찰 토지를 교회 납골당 집입로 내줘 중단 및 분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파주 보광사(주지 수은)는 수년째 사찰 앞 납골당 설치를 놓고 새문안교회 측과 갈등을 겪어왔다. 새문안교회가 납골당 설치를 위해 보광사 앞 부지를 매입해 공사를 시작했지만, 반드시 확보해야 할 광사 소유 토지가 포함돼 있던 것.

새문안교회는 보광사 측에 사찰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게 해달라며 사용승인을 요청했지만 보

교회 납골당 집입로 승인 중단, '종법 위반 검토'

광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아왔다.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보광사 주지 초경 스님 후임으로 수은 스님이 6월 임명됐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광사 새 집행부는 새문안교회에 사찰 토지의 도로 사용을 허락했던 것.

최근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광사가 개신교 납골당을 허용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해종행

위라는 고발도 잇따랐다.

이 같은 비난에는 사찰지를 임대하거나 매매 행위 등을 할 때 필요한 총무원장 허가가 없었다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조계종 제25교구(봉선사) 신도회는 "개신교 납골당과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지는 못할망정 동조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광사 측은 납골당 공사는 2009년부터 파주시청이 허가한 사안으로 보광사가 도로 사용승인을 계속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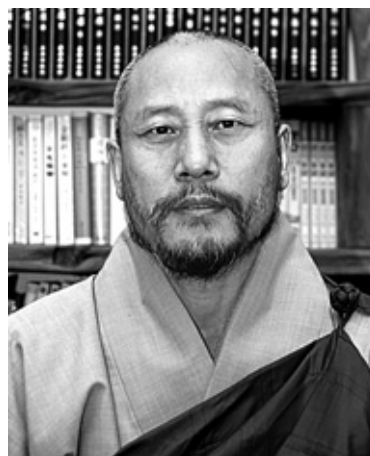
보광사 관계자는 "새문안교회가 보광사 토지를 집입로로 사용하고 보광사 주차장에 화장실을 건립해 주는 조건을 제시해 새문안교회 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보광사 한동철 총무실장은 "종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전에 총무원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착오"라면서도 "이번 일과 관련해 교구본사와 총무원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신임 주지 길 들이기,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조계종 호법부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놀리는 땅 팔면 될 일"

양양 휴휴암 회주 흥법 스님



"쓰지도 않는 땅을 자기 땅이라도 울타리를 쳐 길을 막아놔습니다. 법당 앞마당에 알박기, 불교탄압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양양 휴휴암(회주 흥법)에 8월 17일 오전 3시경, 인부 100여 명과 중장비가 진입해 신도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휴휴암 경내에 자리한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땅에 나무를 심기 위해 일어난 일이다. 이에 대해 휴휴암 회주 흥법 스님(사진)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흥법 스님은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30여 년 전부터 양양군 현남면 일대에 40여 만평을 사들여 놓고는 개발도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1996년 휴휴암을 창건했다. 법당 앞 김준기 회장 땅 때문에 불사마다 결림이 있었다. 2000년 들어 동부그룹 측이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김 회장 땅에 울타리를 치면서 대중의 불편은 더 커졌다.

흥법 스님은 동부그룹 측의 이 같은 행위가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공공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스님은 "휴휴암을 찾는 사람과 차량이 많은데 사유지란 이유로 길도 못 넓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철조망 등을 둘러

자기 땅이라 표시하는 통에 이만저만하게 흥한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흥법 스님은 "김준기 회장 때문에 인근의 노인복지시설 보리수마을도 망했다"고 주장했다.

흥법 스님은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을 만나려고 그룹 본사를 찾아가도 총무원장스님이 와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대중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스님의 주장에 대해 동부그룹은 "휴휴암에는 10여 년 전부터 내 용증명 등을 통해 수차례 이의제기를 한 바 있고, 이번 식수를 위한 진입은 양양군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공정한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또, "휴휴암 측에서 토지매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세상은 용기 있는 한사람으로 인해 비편다" 민해 스님(1879~1944)의 사상과 문학을 기리는 '2011만해축전'이 8월 12~14일 백담사를 비롯한 인제군 일원에서 성료됐다.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자승 스님은 법어에서 "이 세상은 용기 있는 한사람으로 인해 크고 광범위하게 바뀌어 간다. 부처님이 그러하셨고 만해스님이 그러하셨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화쟁리더십 제2기 개강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한 화쟁리더십아카데미가 9월 5일 제2기 강좌를 시작한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공동주최하는 행사에는 도법 스님, 윤여준 평화교육원 원장 등 1기 강사를 비롯해 임동원 前 국가정보위원장, 최완수 간송미술관 실장,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 대 교수,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화쟁리더십아카데미 제2기 강좌는 11주 과정으로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수강 정원은 70명, 등록금은 40만원이다. (02)730-0884

조동섭 기자

조계종 최초 해외교구 설립

美 동부 16개 주 담당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8월 9일 열린 제33차 총무원회에서 '미국 동부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미국 동부 해외특별교구는 뉴욕 뉴저지 뉴햄프셔 등 16개 주와 온타리오, 퀘벡 등 캐나다 동부 6개주가 관할이다.

봉선사주지, 정수 스님 단독 입후보

8월 26일 산중총회에서 있을 남양주 봉선사 주지 선거에 정수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 입후보 예정이던 정수·화법 스님이 18일 만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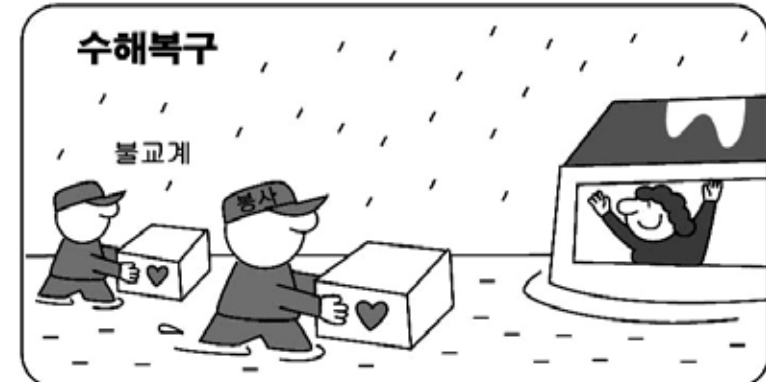
미 동부교구 교구장 선출에는 뉴저지 보리사 원영 스님, 뉴욕 원각사 지광 스님, 뉴욕 청야사 석담 스님이 교구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19일 제23차 회의에서 공석이던 비구니 중앙총회의원에 상화 스님을 선출했다. 조동섭 기자

갖고 문종의 원용화합을 위해 정수 스님이 단독 입후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봉선사 관계자가 전했다.

정수 스님은 봉선사에서 운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운경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구족계를 수지하고, 해인사 강원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선암사 재적승려 분한신고

귀의 삼보하옵고

오랫동안 재적승 승적정리가 이행되지 못하여 중무행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실시하는 제29대 주지선거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분한신고를 실시하오니 재적스님들께서는 전원 동참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한신고를 필하지 않은 재적승려는 재적승의 자격이 중지됨은 물론 주지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1. 승적원부 (총무원 발행)
2. 이력서 (사진 부착)
3. 건당확인서 (선암사 합동 건당자에 한함)

신고기간 : 2011년 8월 1일 ~ 8월 31일

접수처 : 선암사 중무소

문의 : 061)754-5247, 061)754-5953